

주부의 시간사용과 시간사용 만족*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ime Use and Satisfaction with It of Full Time Housewives

동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박명숙
교수 백경임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 Kyongju Campus
Associate Prof. : Myung Sook, Park
Prof. : Kyung Im, Baik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usewives' time use and satisfaction with it and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se.

Subjects were 222 housewives with pre-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 standard deviation, X^2 -test, t-tes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Housewives spent over 1/3 of time on physical care(sleeping..etc.).
- 2) The use of time by housewives was mainly influenced by husband's status and children's state(age, the number of extra curricular hours, educational level)
- 3) The satisfaction with time use was affected by first child's age, husband's age, husband's educational level, wives's educational level, and household income.

* 본 논문은 1996년도 태평양장학재단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시간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면서 시간 사용에 대한 관심은 후기산업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Robinson, 1996). '92년 코넬대학에서 21세기의 가족 시간 사용에 관한 회의 개최 이후 '96년에는 *Th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에서는 "가정의 시간사용: 21세기에 대한 연구(Household Time Use: Research in the 21st Century)"라는 제목하에 많은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는데 이는 21세기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시간사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시간은 다른 자원과는 달리 누구에게나 1일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본질상 절약, 저축할 수 없으며 지나간 시간은 되돌려 질 수 없는 특성을 가졌다(문숙재, 1994).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용하는 시간의 분배, 조절에 의한 것이며 그 개인의 관리 능력 여하에 따라 생활의 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시간'이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는 경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삶의 본질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시간이 가족자원 중 대표적인 인적자원으로 인식되면서부터는 시간자원의 효과적인 사용과 관리측면에서의 연구에 주력하였는데(환경미, 1991), Mincer 이후 여성의 시장생산 시간과 가계생산 시간의 관련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는 취업주부의 시간 사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져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취업주부들의 경우 이들의 효과적 시간사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특히 시간사용 유형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행해진 바 있으나 이를 만족여부와 관련시킨 연구는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시간사용과 이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효율적 시간 사용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부모역할은 일생을 두고 되돌릴 수 없는 중

요한 과정으로 사회, 경제, 기술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부모에 대한 기대는 높아진 반면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설정은 매우 어렵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주부로서 자녀양육행동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구체적인 시간사용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초등학교 이하 시기인 영아, 유아, 아동은 주부의 물리적 정신적 자원을 월등히 많이 요구하는 시기이며, 모성의 역할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시기 보다 막중하다. 가족생활주기면에서 볼 때에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은 가정확대기의 전기 단계로서 주부의 책임이 중압되는 시기(채옥희, 1995)이므로 이들의 시간질량은 매우 중요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비취업 주부를 대상으로 이들의 전반적인 생활 시간사용 유형과 시간사용 만족도 및 관련변수(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자원적 요인)와의 관계를 분석하므로써 이들의 시간사용 계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문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주부의 시간사용과 시간사용 만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자원적 요인과 시간사용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2-1: 환경적 요인에 따라 시간사용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2: 개인적 요인에 따라 시간사용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3: 자원적 요인에 따라 시간사용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3〉 환경적, 개인적, 자원적 요인과 시간 사용 만족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3-1: 환경적 요인에 따라 시간사용 만족도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2: 개인적 요인에 따라 시간사용 만족도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3: 자원적 요인에 따라 시간사용 만족도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시간사용의 효율성

효율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경제학 원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즉 효율성은 시스템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분석을 다루는 것으로서 최대의 효율성이란 특정 투입수준에서 최대의 결과를 얻는다는 측면과,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소의 자원을 사용한다는 측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Sproles, 1980). 따라서 시간사용의 효율성이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최소의 시간을 사용하는 측면과, 동일 시간사용시 최대의 결과를 얻는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때의 결과는 심리적 만족과 객관적 성과 모두를 고려해야만 한다(박명숙, 1991).

시간은 그 특성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인지한 효용성에 따라 여러 활동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는데(Feldman & Hornik, 1981), 어떤 활동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당하게 되는가, 그리고 시간이 주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등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Feldman과 Hornik(1981)은 시간사용(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인지된 가치관과 함수관계이며 인지된 가치관은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개인의 인성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하므로써 시간사용 선택이 다분히 주관적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런가하면 Strober와 Weinberg(1980)는 주부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사노동의 양과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면 가사노동 절약 기구로 가사노동을 대체시키는 방안, 가족원이나 가정부에게 가사노동을 대체시키는 방안, 가사노동의 양과 질을 줄이거나 혹은 노동력을 밀도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자원봉사나 지역활동의 시간사용을 줄이는 방안, 여가시간이나 수면시간을 줄이는 방안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후 Nickols와 Fox (1983)는 Strober등의 견해를 기초로하여 시간을 절약하는 방안을 시간 절약재를 구입하는 것(time-buying strategy)과 시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time-saving strategy)을 제시했다. 문숙재(1996, 100-101)는 시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자신의 목표를 확인하고 행동을 순서화하므로써 일정한 시간내에 목표한 작업을 달성하는 것을 효율적인 시간 관리자로 규정하면서 이는 시간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상의 방안들은 주부들의 효율적 시간사용을 위한 일반적인 시간절약 방안으로 이러한 방안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취업 주부의 경우와 비취업 주부의 경우를 구분해서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들면 시간사용에 대한 기회비용을 적용할 경우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시간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재화구입이 바람직한 시간절약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비취업 주부일 경우는 시간절약을 위해 화폐사용으로 대체시키는 것보다는 효율적 시간 관리를 통해 가정생산에 기여하므로 화폐소득을 올리는 것과 동일한 노동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시간관리 방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취업 주부에 비해서 취업주부의 경우는 보다 많은 시간 제약을 받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시간관리 방안을 위한 연구는 수행된 바가 많으나(Berk, 1980; Leuthold, 1981; 한경미, 1992, 1993; 이정숙, 1994 등) 비취업 주부의 시간관리 방안을 위한 연구(조성은, 1991; 채옥희, 1995 등)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비취업 주부를 대상으로 이들의 시간사용 유형과 시간사용 만족도를 파악하므로써 효율적 시간사용을 위한 계획 설정에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관련 변수의 고찰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는 주부의 취업 유무, 나이, 교육수준등 주부 자신의 개인적 요인과 가족수, 남편의 직업, 자녀나 이등 환경적 요인 그리고 소득, 가사용 내구재 시설 설비등 자원적 요인 등이 주요 영향변수로 제시되었다.

가사노동 시간의 경우 주부의 나이(김외숙, 1981), 주부의 교육수준과 취업여부(채옥희, 1995), 소득(이정수, 1984; 채옥희, 1995), 자녀 나이(한경애, 1991) 등이 관련 변수로 제시되었다. 여가시간은 주부의 나이가 어릴수록 (김외숙, 1977), 교육수준이 높을수록(민경애, 1985) 많은 반면, 자녀수가 많고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Hill, 1988)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보기 시간은 주로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접근으로 행해졌는데 첫 자녀 나이(문숙재, 김성희, 1995), 주부 교육수준 및 가계소득(문숙재, 김성희, 1996) 등이 영향변수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주부의 시간 사용은 주로 주부자신과 자녀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녀 역할관이 변화하면서 남편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문숙재, 조성근, 1995; 허경옥, 1995), 주부의 관심사가 자녀와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공선영, 1993)로 볼 때, 주부의 시간사용이 남편의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에서 제시된 시간사용 관련 변수와 더불어 남편의 나이, 교육수준, 집 밖에서의 근무시간, 남편의 가사일 및 자녀양육 도움정도 등 남편과 관련된 변수를 시간사용 관련 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시간사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시간사용의 유형과 영향변수에 초점을 둔 연구로 사용결과에 대한 '시간사용 만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다만 임정빈 등이(1994) 시간사용의 산출을 위해서는 시간사용에 있어서 통제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시간사용의 심리적 변수로 갈등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한경미, 1991)등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부들의 시간사용 및 영향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접근과 더불어 심리적 접근인 시간사용 만족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의 구성

시간 사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응답자들에게 자신의 사용한 시간을 기억해서 쓰도록 하는 설문지 조사방법과, 한 행동이 시작되고 끝날 때마다 기록하도록 하는 일기 기록법이 있다(문숙재, 1994; Robinson, 1977).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수반되지만 본 연구는 전반적인 시간사용과 시간사용 만족 그리고 영향변수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한 시간 전체를 기억해서 응답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후자의 방법인 시간일지 기록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위한 척도의 구성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시간 기록표

하루의 생활시간을 기준의 생활시간 분류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크게 생리적 시간, 여가 시간, 가사노동 시간, 자녀돌보기 시간, 기타(봉사활동 시간등) 5개 영역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각 영역에 하위영역을 구분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생활시간 분류

구 분	생 활 시 간
생리적 시간	수면(밤잠), 식사, 세면, 목욕, 병원치료 받기 등.
여가 시간	T.V., 비다오 시청, 신문 잡지 보기, 음악감상, 스포츠, 종교활동 등.
가사노동 시간	식사준비, 청소, 빨래, 장보기, 집안일 계획, 가계부 기록 등.
자녀돌보기 시간	자녀와 놀아주기, 숙제 도와주기, 밥먹이기, 목욕시키기, 병간호하기 등.
기 타	사회봉사활동, 시간표 기록 등.

시간일지는 위에서 제시한 각 영역을 보기로 제시한 후 하루 24시간을 30분 간격의 눈금으로 구획하여 활동이 시작된 시각부터 끝나는 시각까지를 표시

한 후 내용을 기입하게 하였다. 동시에 두가지 일을 하였을 경우는 보다 우선되는 활동을 적고 우선되는 활동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두가지 활동을 모두 표기하도록 한 후 분석과정에서 중복사용이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경우는 둘로 나누었으며, 30분을 한 단위로 간주하여 생활시간을 30분 단위로 분석하였다.

2) 시간사용 만족도

본 연구에서 분류한 생활시간은 5가지 영역이지만 예비조사 결과 생리적 시간, 기타 활동시간과 영향 변수와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 영역을 제외한 여가시간, 가사노동시간, 자녀돌보기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와 전체적인 만족도를 조사했으며 각 영역별 만족도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즉 여가시간은 T.V.시청이나 음악 감상등 “家内 여가시간”과 스포츠 활동이나 영화감상등 “家外 여가시간”으로, 가사노동은 식사준비, 설거지등 “家内 가사노동”的 경우와 장보기 은행이용등 “家外 가사노동”으로 구분하였다. 자녀돌보기 시간은 자녀와 놀아주기, 밥먹이기 등과 같은 “일상적인 돌봄”과 숙제지도등 “자녀 학습지도”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별로 1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사용한 시간에 비해 결과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공교수와의 3차례의 회의와 대학원생과의 2차례의 회의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시간사용 관련변수: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자원적 요인

선행연구를 기초로 시간사용과 관련된 변수로 판단된 요인을 Robinson(1977)의 분류를 기초로 환경적, 개인적, 자원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1) 환경적 요인: 가족수, 첫자녀 나이, 막내자녀 나이, 자녀의 과외학습 수, 자녀 성별, 남편나이, 남편교육수준, 남편 근무시간, 주거형태.
- (2) 개인적 요인: 주부 나이, 주부교육수준.
- (3) 자원적 요인: 소득수준, 남편의 도움정도, 가사조력자의 유무, 대리양육자 유무, 자동차 유무.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비취업주부로 첫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로 제한하였다.

'97년 1월 50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척도를 수정 보완한 후 '97년 4월 2일 -4월 23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여 강남구, 서초구, 강북구, 강서구, 강동구, 관악구에 거주하는 비취업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를 나눠준 후 2-3일이 지난 후 다시 방문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총 250부를 배부하였는데 223부가 회수되었고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222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조사에서 선정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2>와 같다. 자료의 처리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X^2 검증, T-test, 일원 분산 분석과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연구문제 1> 주부의 시간 사용과 시간사용 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1) 시간 사용

주부의 시간 사용 유형을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는 <표 3>과 같다.

평일과 휴일 모두 생리적 시간사용이 하루시간 사용량의 1/3을 훨씬 상회하므로서 생리적 시간사용 즉 수면, 목욕 시간등이 하루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절대적 요소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를 역으로 설명하면 효율적 시간관리를 위해서 절약할 수 있는 영역 또한 이 영역으로 생리적 시간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각 개인의 상황(개인의 나이, 자녀수 등)에 따라 적합한 수면시간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훈련방안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시간관리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특성	집단	빈도	백분율	특성	집단	빈도	백분율	
가족수	3명 이하	58	26.1	주거형태	개인단독주택	54	24.3	
	4 ~ 5명	131	59.0		아파트	126	56.8	
	6 ~ 8명	33	14.9		빌라및연립주택	30	13.5	
	계	222	100.0		기타	11	5.0	
부인나이	24~30세	37	16.7	부인교육수준	무응답	1	0.5	
	31~34세	83	37.4		계	222	100.0	
	35~39세	77	34.7		고졸이하	87	39.2	
	40~45세	25	11.3		대학교졸업	117	52.7	
남편나이	계	222	100.0		대학원졸업	16	7.2	
	29~34세	52	23.4		무응답	2	0.9	
	35~39세	107	48.2		계	222	100.0	
	40~50세	63	28.4	남편교육수준	고졸이하	42	18.9	
막내자녀연령	계	222	100.0		대학교졸업	136	61.3	
	1 ~ 7세 (미취학아동)	132	59.5		대학원졸업	41	18.5	
	8 ~ 12세 (취학 아동)	90	40.5		무응답	3	1.4	
	계	222	100.0		계	222	100.0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57	25.7	
					200~300万	87	39.2	
					300~400万	43	19.4	
					400만원이상	33	14.9	
					무응답	2	0.9	
					계	222	100.0	

〈표 3〉 주부의 시간사용

(단위: 분)

구분	평일	휴일
생리적 시간	593.4	539
여가 시간	288.6	493.7
가사노동 시간	271.2	218
자녀돌보기 시간	244.5	148.2
기타(사회봉사 활동 등)	40.8	41.1
계	1438.5	1440

(결측값으로 인해 빈도의 총합에 차이가 있음)

에 도움이 될 것이다. Turla와 Hawkins(1983, 106-110)는 질적 수면 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평일의 경우 각 영역에 대한 시간할당이 거의 비슷한데 비해서(약 4시간) 휴일의 경우는 여

가시간에 대한 할당이 절대적으로 높게(약 9시간)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써 평일과 휴일의 시간사용 패턴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2) 시간사용 만족도

자신이 사용한 시간에 비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간사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영역별로는 자녀학업 지도 시간에 대해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서 주부들이 자녀학습지도에 대한 관심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1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6.38로서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한 효율적 시간 사용방

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간사용은 습관화 될 수 있으며 이를 길들이기에 따라서 시간사용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 혹은 가족의 시간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Turla 등(1983)이 발표한 바 있고, Hanna 등(1996)이 교육용 소프트웨어¹⁾를 개발하여 시간 사용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표 4〉 생활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구 분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일상적 자녀돌보기시간	6.53
자녀 학습 지도시간	6.86
집내 가사노동시간	6.32
집외 가사노동시간	6.64
집내 여가시간	5.94
집외 여가시간	5.47
전체적인 만족도	6.38

2. 〈연구문제 2〉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지원적 요인과 시간사용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1) 환경적 요인과 시간사용

환경적 요인에 따른 시간사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을 한 결과(〈표 5〉) 평일의 생리적 시간사용은 막내자녀의 나이, 막내자녀의 과외 학습 수 등 ‘막내자녀’의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막내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를 위한 시간투자가 증가한다는 문숙재, 김성희(1996), Joesch(1994)등의 연구와 일치한다.

여가시간 사용은 남편의 나이가 많을수록, 첫 자녀의 과외 학습수가 많을수록, 개인 주택보다는 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여가시간이 많아지는지를 보기 위해 남편나이와 소득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한 결과 의미가 없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편나이의 독립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부부의 권력구조로 볼 때 결혼초보다는 결혼년수가 지속될수록 부인이 시간사용에 자율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첫 자녀의 과외학습 수가 많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은 것은 교육기능이 사회화 되므로서 가정내에서의 자녀학습지도 시간이 줄어든 결과라고 해석되며 주거형태의 경우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주부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쉽고, 여가생활에 대한 정보탐색이 용이하여 그에 따른 집단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가시간사용이 많다고 해석된다.

자녀돌보기 시간은 가족수, 남편의 나이와 교육수준, 자녀나이(첫자녀, 막내자녀)와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써 ‘남편’과 ‘자녀’요인이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해 주었다. 이는 주부 관심사가 지나치게 남편과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공선영(199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미취학 자녀가 취학 자녀보다 자녀돌보는 시간이 많은 것은 학업지도 보다는 ‘밥 먹이기’, ‘목욕시키기’등 일상적 보살핌에 대한 시간 사용이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사노동 시간은 남편의 교육수준의 낮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외 사회봉사 활동등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거주자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 사용이 아파트 거주자가 높게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 주었다.

반면에 휴일의 경우 여가시간 사용은 남편의 나이와 근무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남편이 1일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은 집단이 많은 집단에 비해서 여가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단위의 여가시간을 갖는 요즘의 추세를 입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편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보기 시간은 막내자녀 나이, 봉사 및 사회활동등의 시간사용은 전체적으로 낮지만 그 중에서도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²⁾

1) A family time use educational tool, The Ohio State Univ., Consumer and Textile Sciences Department, 1996.

〈표 5〉 평일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²⁾

구 분	생리적 시간 사용		
	평 균	F값	Duncan 검증
막내 자녀 학습 수	a 1개 이하	19.1129	5.8376 ** a.b
	b 2-3 개	20.7632	
	c 4개 이상	19.7778	
막내 자녀 나이	a 미취학 아동	19.3730	t값 -2.81*
	b 취학아동	20.4146	

2) 개인적 요인과 시간사용

평일의 자녀 돌보기 시간은 주부의 나이와 교육수준, 여가시간 사용은 주부의 나이, 가사노동시간 사용은 주부의 교육수준만이 차이를 보였다.(〈표 7〉)

자녀돌보기의 경우 34세 미만 집단과 35세 이상 집단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시간집약적 돌봄이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자녀돌보는 시간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자녀돌보는 시간이 감소하는 시점의 주부에 적합한 대체적 시간사용 방안을 제시해준다면 이들의 시간사용 효율성을 증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평일의 여가시간 사용은 주부 나이가 35-39세 집단이 가장 높고, 24-30세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나이와 관련 깊은 것으로 주부들의 시간사용 제약에 자녀돌보는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반증해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녀돌보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간사용이 많은 반면 가사노동시간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많이 나타나므로써 대조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돌보기에는 자신감도 있고 가치성을 부여하지만, 가사노동의 경우는 '지루한 반복적인 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휴일의 시간사용은 자녀돌보기 시간과 여가 시간 만이 주부나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

〈표 5〉 계속

구 分	여가시간 사용		
	평 균	F값	Duncan 검증
남편 나이	a 29-34세	8.7000	2.9723* a.c
	b 35-39세	9.5000	
	c 40-50세	10.6034	
첫 자녀 학습 수	a 1개 이하	8.4091	4.0790* a.c
	b 2-3개	10.0851	
	c 4개 이상	10.4242	
주거 형태	a 단독주택	8.8980	2.6034* b.a b.c
	b 아파트	10.1653	
	c 빌라·연립주택	8.1111	
	d 기타	10.4545	
구 분	자녀돌보기 시간 사용		
	평 균	F값	Duncan 검증
가 족 수	a 3명 이하	6.0000	3.7800* a.b
	b 4-5 명	3.0196	
	c 6명 이상	3.9593	
남편 교육 수준	a 고졸이하	6.7632	2.9429* a.b a.c
	b 대학졸업	8.5194	
	c 대학원졸업	8.4103	
남편 나이	a 29-34세	9.2200	5.5163** a.c
	b 35-39세	8.4000	
	c 40-50세	6.7931	
첫 자녀 나이	a 7세 이하	8.9832	6.5555** a.c
	b 8-10세	7.2800	
	c 11세 이상	6.7179	
막내 자녀 나이	a 미취학 아동	9.0000	t값 3.92***
	b 취학아동	6.8415	
구 분	가사노동시간 사용		
	평 균	F값	Duncan 검증
남편 교육 수준	a 고졸이하	9.6842	3.5472* a.c
	b 대학졸업	9.2868	
	c 대학원졸업	7.8718	
구 분	사회봉사 및 기타활동 시간사용		
	평 균	F값	Duncan 검증
주거 형태	a 단독주택	2.5918	2.6930* a.b b.c
	b 아파트	0.7355	
	c 빌라·연립주택	2.0000	
	d 기타	1.1818	

* p < .05 ** p < .005 *** p < .001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간의 분석단위는 30분이므로 평균값을 시간으로 해석하려면 평균값 /2를 해야하며 이는 이하의 모든 표의 해석에 적용된다.

〈표 6〉 휴일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구 분		자녀돌보기시간		
막내 자녀 나이	a 미취학 아동	9.0000	t값 3.92***	
	b 취학아동	6.8415		
구 분		여가시간		
		평균	F값	Duncan 검증
남편 나이	a 29-34세	14.0200		
	b 35-39세	15.1500	2.9878*	a.c
	c 40-50세	16.5000		
남편 근로 시간	a 10시간 미만	16.6182	t값 2.17*	
	b 10시간 이상	14.8212		
구 분		봉사 및 기타 활동 시간		
		평균	F값	Duncan 검증
남편 교육 수준	a 고졸이하	0.5789		
	b 대학졸업	0.1985	3.6133*	a.c
	c 대학원졸업	0.0001		a.b

* p < .05 ** p < .005 *** p < .001

데(〈표 8〉), 자녀돌보기의 경우 시간사용은 평일보다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휴일의 자녀돌보기는 가족원 분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집단별로는 24-30세 집단이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가시간의 경우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나이와 주부의 시간사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3) 자원적 요인과 시간사용

주부의 평일 여가시간 사용은 소득과 관련이 있었고, 가사노동시간은 가사조력자의 유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소득이 높은 집단이 여가시간 사용이 많으나 400만원 이상 집단 보다는 300-400만원 집단이 시간 사용이 많게 나타나므로써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시간도 많다는 가설을 성립시켜 주지는 않는다. 이는 여가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뒷받침 해줘야 되지만 그 이상을 넘으면 소득을 위한 또 다른 관리 문제로 여가시간이 상쇄되기 때문이라고 보이나 이에 대해

〈표 7〉 평일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구 分		자녀돌보기시간		
		평균	F값	Duncan 검증
주부 나이	a 24-30세	9.1176		a.c
	b 31-34세	9.4615	8.1675***	a.d
	c 35-39세	6.6944		b.c
	d 40-45세	6.8750		b.d
교육 수준	a 고졸이하	7.2750		
	b 대학졸업	8.5818	4.3680*	a.c
	c 대학원졸업	10.0000		
구 분		여가시간		
주부 나이	a 24-30세	8.4706		
	b 31-34세	9.1282	3.3903*	a.c
	c 35-39세	10.8056		b.c
	d 40-45세	9.2500		
구 분		가사노동시간		
교육 수준	a 고졸이하	9.8250		
	b 대학졸업	8.8545	5.8542**	a.c
	c 대학원졸업	6.9375		

* p < .05 ** p < .005 *** p < .001

〈표 8〉 휴일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구 分		자녀돌보기시간		
		평균	F값	Duncan 검증
주부 나이	a 24-30세	5.2941		b.c
	b 31-34세	3.9615	4.8252**	a.c
	c 35-39세	2.8472		a.d
	d 40-45세	3.4167		a.b
구 분		여가시간		
주부 나이	a 24-30세	12.7647		b.a
	b 31-34세	15.0513	4.8661**	c.a
	c 35-39세	15.7917		d.a
	d 40-45세	17.8333		d.b

** p < .005

서는 추가적 연구가 요구된다.

휴일의 시간사용의 경우는 대리양육자의 유무에 따라 자녀돌보기 시간과 여가시간 사용에 차이를 보였는데(〈표 10〉), 대리양육자가 있는 경우에 자녀돌보기 시간이 더 많고, 여가시간은 오히려 줄어든 것

〈표 9〉 평일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적 요인

구 분	여 가 시 간		
	평 균	F 값	Duncan 검증
소득	a 200만원 미만	8.1923	
	b 200-300만원	9.8544	
	c 300-400만원	10.3659	2.8337*
	d 400만원 이상	10.1667	a.c
구 분	가 사 노 동 시 간		
가사			
조력	a 유	6.3750	
자의	b 무	9.2604	t값 -3.38***
유무			

* p < .05 *** p < .001

〈표 10〉 휴일의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적 요인

구 분	가 사 노 동 시 간		
	평 균	F 값	Duncan 검증
남편 의 도움	a 거의 돕지않는다	7.1515	
	b 조금 돕는다	5.1607	4.0519*
	c 많이돕는편이다.	6.1453	a.b
구 분	자녀 돌보기 시간		
대리 양육 자			
a 유	5.1739		
b 무	3.5754	t값 = 2.22*	
구 분	여 가 시 간		
대리 양육 자			
a 유	12.8261		
b 무	15.5475	t값 = -2.31*	
구 분	봉사 및 기타 활동 시간		
남편 의 도움	a 거의 돕지않는다	0.5758	
b 조금 돕는다	0.0000	3.2170*	a.b
c 많이돕는편이다.	0.1453		a.c

* p < .05 *** p < .001

은 휴일의 경우 평소에 대리양육자의 도움을 받던

부분까지 주부가 보충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평일과는 달리 휴일의 경우 가사노동시간과 봉사 및 기타 활동 시간사용은 남편의 자녀양육 도움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3. 〈연구문제 3〉 환경적, 개인적, 자원적 요인과 시간사용 만족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요인에 따른 영역별 시간사용 만족도와 총체적 시간사용 만족도³⁾를 조사하였다.

1) 환경적 요인과 시간사용 만족

우선 각 요인에 따른 영역별 시간사용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家內 여가시간 만족은 남편의 나이가 많을수록, 첫 자녀 나이가 학령전기보다 학령기 자녀일 때가 높았다.(〈표 11〉, 〈표 12〉) 영아나 유아는 학령기 아동에 비해 보다 많은 신체적 관리가 요구되며 신체적 관리는 시간집약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문숙재, 김성희, 1996)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집안에서의 주부의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家外 여가시간 만족은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자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표 14〉)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주부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쉽고 여가생활에 대한 정보탐색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결과로 볼 때 공공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일관된 체널로 홍보한다면 보다 많은 주부들의 여가생활 만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장보기나 은행 이용등 家外 가사노동 시간사용 만족도는 첫자녀의 성별, 첫 자녀의 과외학습 수, 남편

3) 앞에서 제시한 6개 영역의 시간사용을 합한 것을 뜻한다. 각 영역마다 10점이 만점이므로 점수의 범위는 0점-6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표 A〉 시간 사용유형과 관련변수와의 관계

구 분	평 일			휴 일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자원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자원적 요인
생리적 시간	· 막내 나이 · 막내파외 학습 수	-	-	-	-	-
여가 시간	· 남편 나이 · 첫자녀 과외 학습 수 · 주거형태	-	· 소득	· 남편 근로 시간 · 남편 나이	· 주부 나이	· 대리양육자 유무
가사노동 시간	· 남편 학력	· 주부 학력	· 가사조력자	-	-	· 남편 도움
자녀돌보기 시간	· 가족수 · 남편 나이, 학력 · 자녀나이(첫 째, 막내)	· 주부나이 · 주부학력	-	· 막내 나이	· 주부 나이	· 대리양육자 유무
기타 (사회봉사활동 시간 등)	· 주거형태	-	-	· 남편학력	-	· 남편 도움

〈표 11〉 家内 여가시간 만족과 남편 나이와의 관계

(빈도(%))

	29~34세	35~39세	40~50세	계
상	10(19.2)	27(25.2)	18(28.6)	55(24.8)
중	8(15.4)	46(43.0)	18(28.6)	72(32.4)
하	34(65.4)	34(31.8)	27(42.9)	95(42.8)
계	52(100.0)	107(100.0)	63(100.0)	222(100.0)

 $X^2=18.89 \quad P < .001$ 〈표 13〉 家外 여가시간 만족과 남편의 교육수준과의
관계

(빈도(%))

	고졸	대졸	대학원졸	계
상	14(33.3)	46(33.8)	23(56.1)	83(37.9)
중	5(11.9)	28(20.6)	7(17.1)	40(18.3)
하	23(54.8)	62(45.6)	11(26.8)	96(43.8)
계	42(100.0)	136(100.0)	41(100.0)	219(100.0)

 $X^2=9.72 \quad P < .05$

〈표 12〉 家内 여가시간 만족과 첫 자녀 나이와의 관계

(빈도(%))

	미취학 (7세 이하)	저학년 (8~10세)	고학년 (11~13세)	계
상	24(19.4)	19(34.5)	12(27.9)	55(24.8)
중	40(32.3)	13(23.6)	19(44.2)	72(32.4)
하	60(48.4)	23(41.8)	12(27.9)	95(42.8)
계	124(100.0)	55(100.0)	43(100.0)	222(100.0)

 $X^2=10.05 \quad P < .05$

〈표 14〉 家外 여가시간만족과 주거형태와의 관계

(빈도(%))

	개인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및 연립주택	기 타	계
상	15(27.8)	57(45.2)	10(33.3)	3(27.3)	85(38.5)
중	11(20.4)	27(21.4)	2(6.7)	1(9.1)	41(18.6)
하	28(51.9)	42(33.3)	18(60.0)	7(63.6)	95(43.0)
계	54(100.0)	126(100.0)	30(100.0)	11(100.0)	221(100.0)

 $X^2=13.97 \quad P < .05$

의 교육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표 15〉, 〈표 16〉, 〈표 17〉) 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첫 자녀가 남자아이일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과외학습수가 1개 이하나 4개 이상 보다는 2-3개가 만족도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과외학습수가 아예 적거나 많은 경우보다 2-3개가 주부의 관리시간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5〉 家外 가사노동 만족과 첫 자녀 성별과의 관계
(빈도(%))

	남	여	계
상	56(45.5)	29(31.2)	85(39.4)
중	30(24.4)	38(40.9)	68(31.5)
하	37(30.1)	26(28.0)	63(29.2)
계	123(100.0)	93(100.0)	216(100.0)

$X^2 = 7.42$ P < .05

〈표 16〉 家外 가사노동 만족과 첫 자녀 과외학습 수와의 관계
(빈도(%))

	1개 이하	2-3개	4개 이상	계
상	30(42.3)	33(33.0)	18(52.9)	81(39.5)
중	23(32.4)	27(27.0)	12(35.3)	62(30.2)
하	18(25.4)	40(40.0)	4(11.8)	62(30.2)
계	71(100.0)	100(100.0)	34(100.0)	205(100.0)

$X^2 = 11.51$ P < .05

〈표 17〉 家外 가사노동 만족과 남편의 교육수준과의 관계
(빈도(%))

	고졸이하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계
상	15(35.7)	51(37.5)	20(48.8)	86(39.3)
중	7(16.7)	49(36.0)	13(31.7)	69(31.5)
하	20(47.6)	36(26.5)	8(19.5)	64(29.2)
계	42(100.0)	136(100.0)	41(100.0)	219(100.0)

$X^2 = 11.55$ P < .05

총체적 시간사용 만족도와 환경적 변수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첫 자녀 나이, 첫 자녀 과외학습 수, 남편의 나이, 남편의 교육수준, 주거형태에 의해서 통계적 차이를 보이므로써 '첫자녀'와 '남편'이 시간

사용만족에 중요변수로 나타났다.(〈표 18〉)

〈표 18〉 총체적 시간사용 만족과 환경적 요인과의 관계

구 분	총체적 시간사용 만족			
	평균	F 값	Duncan 검증	
첫 자녀 나이	a 7세 이하 b 8-10세 c 11세 이상	39.7077 45.0000 44.5000	4.2975*	c.a b.a
주거 형태	a 단독주택 b 아파트 c 빌라, 연립주택 d 기타	39.3462 44.4930 39.7143 32.5000	5.7035**	b.d b.a
남편 나이	a 29-34세 b 35-39세 c 40-50세	36.5517 44.5192 42.7105	7.1982**	c.a b.a
교육 수준	a 고졸이하 b 대학졸업 c 대학원졸업	36.7143 42.5714 45.0500	4.5291*	b.a c.a
첫 자녀 과외 학습 수	a 1개 이하 b 2-3개 c 4개 이상	39.0000 43.1875 47.3913	6.5262**	b.a c.a

* p < .05 ** p < .005

2) 개인적 요인과 시간사용 만족

개인적 요인과 시간사용 만족은 家外 가사노동만족도에 의해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자녀의 일상적 보살핌과 학습지도등 자녀돌보기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표 19〉 家外 가사노동 만족과 부인 교육수준과의 관계
(빈도(%))

	고졸이하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계
상	29(33.3)	50(42.7)	8(50.0)	68(30.9)
중	22(25.3)	40(34.2)	6(37.5)	68(30.9)
하	36(41.4)	27(23.1)	2(12.5)	65(29.5)
계	87(100.0)	117(100.0)	16(100.0)	220(100.0)

$X^2 = 10.47$ P < .05

높게 나타났다.(〈표 20〉, 〈표 21〉)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가 자녀학습지도에 대한 능력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아동의 IQ가 아버지의 교육 수준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박광배, 1997)와 연결하여 생각할 때 주부의 재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표 20〉 일상적 자녀돌보기 만족과 교육수준과의 관계
(빈도(%))

	고졸이하	대학졸업	대학원졸	계
상	27(31.0)	45(38.5)	11(68.8)	83(37.7)
중	28(32.2)	43(36.8)	3(18.8)	74(33.6)
하	32(36.8)	29(24.8)	2(12.5)	63(28.6)
계	87(100.0)	117(100.0)	16(100.0)	220(100.0)

X²=10.65 P < .05

〈표 21〉 자녀학습지도 만족과 부인의 교육수준과의 관계
(빈도(%))

	고졸이하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계
상	26(29.9)	63(53.8)	9(56.3)	98(44.5)
중	30(34.5)	38(32.5)	6(37.5)	74(33.6)
하	31(35.6)	16(13.7)	1(6.3)	48(21.8)
계	87(100.0)	117(100.0)	16(100.0)	220(100.0)

X²=20.04 P < .001

총체적 시간사용 만족도는 주부나이와 교육수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5-39세 집단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았다.(〈표 22〉)

3) 자원적 요인과 시간사용 만족

거의 전 영역에 있어서 시간사용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적 요인은 소득으로 나타나므로써 소득이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임이 입증되었다.

자녀돌보기의 경우 일상적인 자녀 돌보기가 소득 수준과 관련없게 나타난것과는 대조적으로 자녀학습지도에 대한 만족도와 소득수준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표 22〉 총체적 시간사용 만족과 개인적요인과의 관계

구 분	총체적 시간사용 만족		
	평균	F 값	Duncan 검증
주부 나이	a 24-30세	38.2105	2.7294*
	b 31-34세	41.1860	
	c 35-39세	45.1220	
	d 40-45세	40.6875	
교육 수준	a 고졸이하	38.3617	b.a c.a
	b 대학졸업	44.1719	
	c 대학원졸업	46.0000	

* p < .05 ** p < .005

〈표 23〉 자녀학습지도 만족과 소득수준과의 관계

(빈도(%))

	200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계
상	22(38.6)	39(44.8)	22(51.2)	14(42.4)	97(44.1)
중	13(22.8)	33(37.9)	14(32.6)	15(45.5)	75(34.1)
하	22(38.6)	15(17.2)	7(16.3)	4(12.1)	48(21.8)
계	57(100.0)	87(100.0)	43(100.0)	33(100.0)	220(100.0)

X²=14.91 P < .05

〈표 24〉 家外 가사노동 만족과 소득수준과의 관계

(빈도(%))

	200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계
상	11(19.3)	33(37.9)	23(53.5)	19(57.6)	86(39.1)
중	22(38.6)	28(32.2)	10(23.3)	8(24.2)	68(30.9)
하	24(42.1)	26(29.9)	10(23.3)	6(18.2)	66(30.0)
계	57(100.0)	87(100.0)	43(100.0)	33(100.0)	220(100.0)

X²=18.31 P < .01

〈표 25〉 家内 여가시간 만족과 소득수준과의 관계

((빈도(%)))

	200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계
상	8(14.0)	18(20.7)	18(41.9)	11(33.3)	55(25.0)
중	16(28.1)	34(39.1)	14(32.6)	8(24.2)	72(32.7)
하	33(57.9)	35(40.2)	11(25.6)	14(42.4)	93(42.3)
계	57(100.0)	87(100.0)	43(100.0)	33(100.0)	220(100.0)

X²=17.58 P < .01

〈표 26〉 家外 여가시간 만족과 소득수준과의 관계

	(비도(%)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계
상	14(24.6)	29(33.3)	22(51.2)	19(57.6)	84(38.2)
중	8(14.0)	19(21.8)	8(18.6)	5(15.2)	40(18.2)
하	35(61.4)	39(44.8)	13(30.2)	9(27.3)	96(43.6)
계	57(100.0)	87(100.0)	43(100.0)	33(100.0)	220(100.0)

 $X^2=17.75 \quad P < .01$

〈표 27〉 家外 여가시간과 자동차수와의 관계 빈도(%)

	가족 공동용 1대	남편용,부 인용1대씩 2대	가족용 차가 없다	기 타	계
상	65(39.6)	9(60.0)	6(16.7)	3(60.0)	83(37.7)
중	34(20.7)	1(6.7)	5(13.9)	1(20.0)	41(18.6)
하	65(39.6)	5(33.3)	25(69.4)	1(20.0)	96(43.6)
계	164(100.0)	15(100.0)	36(100.0)	5(100.0)	220(100.0)

 $X^2=16.10 \quad P < .05$

〈표 28〉 총체적 시간사용과 자원적 요인과의 관계

구 분	총체적 시간사용		
	평 균	F 값	Duncan 검증
a 200만원 미만	35.7667		b.a
b 200-300만원	42.8868		c.a
c 300-400만원	43.7778	8.1015***	d.a
d 400만원 이상	48.0000		d.b

* p < .05 *** p < .001

로 자녀학습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표 23〉) 장보기, 은행이용등의 家外 가사노동은 소득수준이 중하집단인 200-300만원 미만 집단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이 집단보다 소득이 높은 집단은 家外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간활동에서 만족을 얻는다고 보아지며, 이 보다 이하의 집단에서는 家外 가사노동에서 조차도 즐거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표 24〉)

家内 여가시간의 경우는 소득수준의 300-400만원 인 중상집단이 만족도가 높은 반면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이나 300만원 미만의 중하집단의 경우는 거의 만족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써 소득이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그에 따른 관리문제로 다른 시간사용이 상쇄됨을 알 수 있다.(〈표 25〉) 또한 家外 여가시간은 자동차 소유여부에 의해서도 만족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써 자동차 시대의 여가 패턴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다.(〈표 27〉) 총체적 시간사용만족과 자원적 요인과의 관계 역시 소득이 중요한 영향변수로, 소득이 높을수록 총체적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연구문제 3〉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B〉와 같다.

V. 결론 및 제언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비취업주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시간사용과 시간사용 만족도를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의 시간 사용은 평일과 휴일 모두 생리적 시간 사용이 하루시간 사용량의 1/3을 상회하였으며, 평일의 경우는 여가시간, 가사노동시간, 자녀돌보기시간 등 각 영역별로 시간할당이 비슷한데 비해 휴일에는 여가시간이 절대적으로 높아서 평일과 휴일의 시간사용패턴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자신이 사용한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1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6.38로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영역별로는 자녀학습지도 시간이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가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휴일의 경우 여가시간에 대한 할당이 가장 많음에도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여가시간 사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주는 것이며, 이에 대한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시간사용과 관련변수는 평일과 휴일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평일의 시간사용은 다른 요인에 비해 환경적 요인 이, 휴일의 경우는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자원적 요인이 보다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과 '자녀'가 주된 관련변수로 나타남

〈표 B〉 시간사용 만족과 관련 변수

구 분	관련 변수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자원적 요인
家内 여가시간 만족	· 남편 나이 · 첫자녀 나이	-	· 소득
家外 여가시간 만족	· 남편교육수준 · 주거형태	-	· 소득 · 자동차 수
家内 가사노동시간 만족	-	-	-
家外 가사노동시간 만족	· 첫자녀 성별 · 첫자녀 과외학습 수 · 남편교육수준	· 주부 교육수준	· 소득
일상적 자녀돌보기 시간 만족	-	· 주부 교육수준	-
자녀학업지도 시간 만족	-	· 주부 교육수준	· 소득
총체적 시간 만족	· 첫자녀 나이 · 첫자녀 과외학습 수 · 남편나이 · 남편교육수준 · 주거형태	· 주부 교육수준 · 주부 나이	· 소득

으로써 주부의 시간사용에 ‘남편’과 ‘자녀’가 주된 영향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네째, 시간사용 만족과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환경적 요인으로는 첫 자녀와 남편이, 개인적 요인으로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자원적 요인으로는 소득이 중요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사용이 막내자녀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데 비해서 시간사용 만족은 첫 자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므로써 주부의 실제 시간사용은 막내자녀의 상태에 좌우되더라도 심리적 기대는 첫째 자녀에게 보다 의존적임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주부의 시간사용과 만족은 주부 자신의 개인적 요인 보다 자녀와 남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부의 시간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개인적 프로그램과 더불어 가족간의 상호의존성을 중요시하는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제시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간사용에 관한 연

구가 보다 가치있는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시간 사용에 따른 결과를 만족과 같은 심리적 변수로만 평가했으나 자녀의 학습지도를 통한 성적 향상이라든가 여가생활을 통한 건강의 향상 등 시간 사용에 대한 객관적 결과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변화에 적합한 정책(복지정책, 경제정책 등)수립을 위해서는 획단적 분석과 더불어 지속적인 종단적 연구와 더불어 시간사용 영역에 대한 표준화 분류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시간사용의 측정방법에 대한 재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이고 상황적이며 중복적 행동이 가능한 ‘복합적 행동’인 생활시간 사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용해 온 조사방법과 더불어 Harvey(1996) 등이 제시한 이야기 분석법(episodical analysis)등이 병행되어야만 보다 질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공선영, “중년 주부의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이 대 석사학위논문, 1993.
- 2) 김외숙, “가족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연구”, 서울 대 석사학위논문, 1977.
- 3) 문숙재, 가정관리학, 서울: 학지사, 1994.
- 4) 문숙재 · 김성희,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의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1995, 301-314.
- 5) 문숙재 · 조성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방 법론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995, 140-149.
- 6) 문숙재 · 김성희,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가 정의 총투자량과 영향요인: 주부의 취업에 따른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4(5), 1996, 49-66.
- 7) 문숙재, 생활시간관리, 서울: 학지사, 1996.
- 8) 민경애 · 윤복자,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실태와 지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 (1), 15-22, 1985.
- 9) 박광배, “K-WPPSI 소검사 점수 및 I.Q 지수의 집 단간 비교”, 한국웩슬러 유아지능 검사 워크(중급 반), 한국아동검사연구회, 서울: 특수교육, 1997.
- 10) 박명숙, “소비자 효율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11) 이나미 · 지영숙, “주부의 시간성향에 따른 시간 관리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995, 179-188.
- 12) 이승미,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9.
- 13) 이정수, “가족의 가사노동 시간과 생활의 질 인 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984, 103-132.
- 14) 이정숙,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 가정관리행 동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4.
- 15) 임정빈 외 4명, 가정관리학, 학지사, 1994.
- 16) 조성은, “주부의 가사노동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991, 95-112.
- 17) 채옥희, “확대기 가정주부의 가사 노동 시간 관리 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88-98.
- 18) 한경미,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989, 1-13.
- 19) ___,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9(2), 1991, 171-190.
- 20) ___, “시간관리철도개발에 관한 연구”, 전남대 학교 가정과학연구 2, 1992, 43-55.
- 21) ___, “시간관리행동과 관련변수: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93, 83-95.
- 22) 허경옥, “가족형태가 부의 자녀양육시간과 결정 요인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2), 57-71.
- 23) 홍성희, “주부의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배분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93, 55-68.
- 24) Berk, S. F., “Women and Household Labor”, Sage Publications, 1980.
- 25) Bryant W. K.,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26) Feldman L. P. , J. Hornik, “The Use of Time: An Integrated Conceptual Model”, J.C.R., V. 7 , 1981 , 407-419.
- 27) Godwin, D., D., “Spouses’ Time Allocation to Household Work: A Review and Critique”,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V.12, 1991, 253-294.
- 28) Harvey, A.S., The Measurement of Household Time Allocation: Data Needs, Analytical Approaches, and Standardiza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 17, 1996, 261-279.
- 29) Hill, M.S.,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1988, 427-451.
- 30) Leuthold, J.H., “Taxation and the Consumption of Household Tim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81, 388-394.
- 31) Nickols S.Y., K.D. Fox, “Buying Time and Saving Time: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

- 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10, 197-208.
- 32) Robinson J. P., "How Americans Use Time", Praeger Special Studies, 1977.
- 33) _____, "Time, Housework, and the Rest of Lif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996, 213-230.
- 34) Sproles, G. B., "New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of consumer efficienc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980, 178-179.
- 35) Strober M.H., C.B. Weinberg,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80, 338-348.
- 36) Turla, P.A., K.L. Hawkins, M.A., *Time Management Made Easy*, Plume, N.Y., 1994.